

선진제도 및 우수사례 자료 수집을 위한
북유럽 4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2023. 8.



고흥군의회

... 목 차 ...

I. 출장개요	1
II. 북유럽 국가 주요 현황	3
III. 공식기관 방문	8
1. 덴마크의회 방문(The Danish Parliament)	8
2. 노르웨이 혁신청 방문(Innovation Norway)	13
3. 시니어복지센터 방문(Methodisthjemmet)	16
4. 스톡홀름 시청 방문(Stockholm City Hall)	19
5. 엔터에스푸(Enter Espoo) 관계자 미팅	20
IV. 북유럽 주요 현장 방문	24
1. 덴마크(게피온 분수 등)	24
2. 노르웨이(비겔란 조각공원 등)	25
3. 스웨덴(바사 박물관 등)	31
4. 핀란드(시벨리우스 공원 등)	32
V. 의정활동 정책검토 보고서	35

I 출장 개요

1. 출장배경

-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북유럽 주요 도시의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사회복지, 친환경분야 등 선진 정책 및 제도 자료 수집
- 기관 관계자 질의·응답 및 현지인들의 실생활 탐구 등을 통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책 창출
- 주요 문화·관광지 답사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구상
-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및 역량 강화

2. 출장내용

- 선진의정 구현의 중심축 덴마크 의회 방문
- 노르웨이 관광 전략 및 트렌드 분석을 위한 노르웨이 혁신청 방문
- 북유럽 복지국가의 선진 복지정책 연구를 위한 노르웨이 베르겐 시 시니어복지센터 방문
- 역사적인 가치(노벨평화상 시상식)와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스톡홀름 시청사 방문
- 스타트업 기업의 천국 핀란드, ENTER ESPOO 관계자 미팅
- 북유럽 주요 문화·관광지 및 자연경관 답사를 통한 우리군 관광 사업 활성화 아이디어 도모

3. 출장기간 및 지역

- 출장기간: 2023. 6. 26.(월) ~ 7. 4.(화) (6박 9일)
- 출장지역: 북유럽 4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4. 출장단 구성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고흥군의회	의장	이재학	
2	"	부의장	김민열	
3	"	위원장	전명숙	
4	"	위원장	박규대	
5	"	위원장	조영길	
6	"	의원	류제동	
7	"	의원	한승욱	
8	"	의원	신건호	
9	"	의원	김준곤	
10	"	의원	고건	
11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차민	
12	"	전문위원	조청미	
13	"	정책지원팀장	이창형	
14	"	주무관	김시현	

II 북유럽 국가 주요 현황

1. 덴마크 일반현황

○ 일반사항

- 국명: 덴마크 왕국(Kingdom of Denmark)
- 수도: 코펜하겐
- 인구: 591만명(2023)
- 면적: 4만2,934km²(한반도의 약 1/5) *그린란드, 페로제도 등 자치령 제외
- 언어: 덴마크어
- 종교: 루터복음교(국교, 74.7%), 이슬람교, 가톨릭, 침례교, 유대교
- 민족: 북게르만계의 덴족(86.3%), 고트족

○ 정치현황

- 정부형태: 입헌군주제하 내각책임제
- 주요인사
 - 국가원수: 마그레테 2세 여왕(1972.1월 즉위)
 - 총 리: 메테 프레데릭센(2019. 6월 취임)
 - 외교장관: 라스 뢰케 라스무센(2022. 12월 취임)
- 의회구성: 단원제, 총 179석(2022. 11월 총선결과)
 - Red bloc(좌파 87석): 사회민주당(50), 사회국민당(15), 적색녹색당(9), 사회자유당(7), 대안당(6)
 - Blue bloc(우파 72석): 자유당(24), 덴마크민주당(14), 자유동맹당(14), 보수당(10), 신보수당(6), 덴마크국민당(5)
 - 중도: 온건당(16석)
 - 그린란드(2석), 페로제도(2석)

○ 경제현황

- GDP: 3,957억\$(2021,WB)

- 1인당GDP: 6만7,759\$(2021,WB)
- 화폐단위: 덴마크 크로네(DKK)
- 교역(2021,한국무역협회)
 - 수출액: 1,249\$
 - 수입액: 1,213\$
- 실업률: 5.0%(2021,WB)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 1959.03.11.: 외교관계 수립
 - 1972.04.05.: 주덴마크대사관 개설
 - 1978.06.14.: 주한한데마크대사관 개설
- 교민현황: 8,694명(2021)

2. 노르웨이 일반현황

○ 일반사항

- 국명: 노르웨이 왕국(Kingdom of Norway)
- 수도: 오슬로
- 인구: 547.4만명(2023)
- 면적: 38만6,958km²(스발바르 제도 포함)
- 언어: 노르웨이어
- 종교: 루터복음교
- 민족: 노르웨이인

○ 정치현황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주요인사
 - 국가원수: Harald V(1991.1월 즉위)

- 총 리: Jonas Gahr Støre(2021. 10월 취임)
- 외교장관: Anniken Scharnning Huitfeldt(2021. 10월 취임)
- 의회구성: 단원제, 총169석(2021년 총선결과)
 - Red bloc(좌파 100석): 노당당(48), 중도당(28), 사회주의좌파당(13), 적색당(8), 녹색당(3)
 - Blue bloc(우파 68석): 보수당(36), 진보당(21), 자유당(8), 기독교인민당(3)
 - 기타(1)

○ 경제현황

- GDP: 4,824억\$(2021,WB)
- 1인당GDP: 8만9,202\$(2021,WB)
- 화폐단위: 노르웨이 크로네(NOK)
- 교역(2021,한국무역협회)
 - 수출액: 1,595\$
 - 수입액: 976\$
- 실업률: 5.0%(2021,WB)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 1959.03.: 외교관계 수립
 - 1972.12.: 주노르웨이대사관 개설
 - 1980.06.: 주한노르웨이대사관 개설
- 교민현황: 7,744명(2021)

3. 스웨덴 일반현황

○ 일반사항

- 국명: 스웨덴 왕국(Kingdom of Sweden)
- 수도: 스톡홀름
- 인구: 1,061.2만명(2023)

- 면적: 44만9,964km²(한반도의 약2배)
- 언어: 스웨덴어
- 종교: 루터교
- 민족: 북부게르만족(95%), 라프(0.2%)

○ 정치현황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주요인사
 - 국가원수: Carl XVI Gustaf 국왕(1973.9월 즉위)
 - 총 리: Ulf Kristersson(2022. 10월 취임)
 - 외교장관: Tobias Billstrom(2022. 10월 취임)
- 의회구성: 단원제, 총349석(2022. 9월 총선결과)
 - 사 민 계: 사회민주당(107), 환경당(18), 좌파당(24), 중앙당(24)
 - 보 수 계: 온건당(68), 기독교민주당(19), 자유당(16)
 - 극우성향: 스웨덴민주당(73)

○ 경제현황

- GDP: 6,274억\$(2021,WB)
- 1인당GDP: 6만28\$(2021,WB)
- 화폐단위: 크로나(SEK)
- 교역(2021,한국무역협회)
 - 수출액: 1,897\$
 - 수입액: 1,866\$
- 실업률: 8.8%(2021,WB)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 1959.03.: 외교관계 수립

- 1963.07.: 주스웨덴대사관 개설
- 1973.07.: 주한스웨덴대사관 개설
- 교민현황: 13,055명(2021)

4. 핀란드 일반현황

○ 일반사항

- 국명: 핀란드공화국(Republic of Finland)
- 수도: 헬싱키
- 인구: 554.5만명(2023)
- 면적: 33만8,145km²(한반도의 약1.5배)
- 언어: 핀란드어(87.6%), 스웨덴어(5.2%)
- 종교: 루터교(69.8%), 그리스정교(1.1%)
- 민족: 핀란드인, 스웨덴인, 사미족 등

○ 정치현황

- 정부형태: 의원집정부제(대통령중심제+의원내각제)
- 주요인사
 - 국가원수: Sauli Niinistö 대통령(2018.02.~/집권2기)
 - 총 리: Petteri Orpo(2023. 06월 취임)
 - 외교장관: Elina Valtonen(2023. 06월 취임)
- 의회구성: 단원제, 총200석
 - 시민당, 중도당, 녹색당, 좌파연합, 스웨덴인당 5개 정당간 연정 구성

○ 경제현황

- GDP: 2,988억\$(2021,WB)
- 1인당GDP: 5만4,008\$(2021,WB)
- 화폐단위: 유로(EURO)
- 교역(2021,한국무역협회)

- 수출액: 818\$
- 수입액: 857\$
- 실업률: 7.6%(2021,IMF)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 1973.08.: 외교관계 수립
 - 1973.08.: 주핀란드대사관 개설
 - 1978.11.: 주한핀란드대사관 개설
- 교민현황: 850명(2021)

III 공식기관 방문

1. 덴마크 의회

기관소개

- 헌법에 따라 4년마다 선거를 실시하고 179명의 의원이 있으며, 그 중 175명은 본토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4명은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서 각 2명씩 선출됨. 16개의 정당이 있으며, 정당별로 1명의 대변인이 있음. 대변인 1명당 4명이 서포트하는 구조임.
- 26개 상임위에서 30개 상임위로 변경되었는데 디지털 상임위가 새로이 추가되었고 사회문제·노인복지 분야를 분리함. 최대 29명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가 있으며, 의원 1명당 5~6개의 상임위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음.
- 사회민주당(50석), 자유당(23석), 온건당(16석)이 주요 정당이며 사회민주당과 자유당은 원래는 서로 대립적인 정당인데 지금은 달라져서 서로 같이 일하는 특이한 사항이 발생함. 온건당은 신당으로 예전 총리가 창당함.
- 종이에다가 총리(장관)에게 법률을 제안하면 장관(총리)는 종이에

답변함. 커뮤니티는 장관을 미팅에 초청할 수 있으며 법률 시행전까지 모든 각계 각층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함. 국회의원들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함.

- 상임위원회는 1주일 1회 개최되며 중요한 사항일 경우 일반인이 참석 가능함.
- 듣는 것에 관하여 덴마크인은 인내심과 관심이 많으며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 일례로 의회에 180명을 초청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함.
- 1국회, 5광역의회, 98기초지자체의회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200년이 넘으며 정부와 지방자치가 긴밀히 일하고 있음. 지방자치는 가장 중점적으로 학교, 의사, 투표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의사는 한사람당 주치의가 정해져 있음.
- 국세20%, 지방세25% 세금을 납부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보장되어 있어 세금 내는 것에 부담이 없음. 특히, 교육비, 병원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세금내는 것에 반감이 거의 없음.
- 국회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약 98% 공개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이 시청가능. 일년에 약 230여개 법률이 제정됨.
- 덴마크의회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기후문제, 복지시스템, 디지털, 지방자치 활동 4가지 분야임
- 대체에너지 산업 중 풍력발전이 유명함. 에너지 아일랜드 및 질란드에 풍력발전기 추가 설치 계획 중이며 풍력발전으로 9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임.
- 복지시스템 중 교육, 의료, 연금이 제일 중요함.
- 현 정부에서 종이를 없애기 위해 문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

질의/응답

○(류제동의원) 상임위원회 회의도 일반인이 참석 가능한지?

A: 항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경우 법률에 관심이 있거나, 법률을 제안한 시민단체 참석 가능.

○(류제동의원) hearing이 단순한 방청인지 아닌지?

A: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여시키고 있으며 일례로 180명까지 초청하여 의견을 들은 경우도 있음.

○(신건호의원) 노인들마다 주치의가 있는지?

A: 노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개인 주치의가 있음.

○(신건호의원) 그럼 의사는 충분히 많은지?

A: 사실, 간호사와 의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임. 공부도 쉽지 않으며 임금은 좋지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 기피함. 300명의 의대학생 중 100명은 덴마크 사람, 100명은 스웨덴사람, 나머지 100명은 외국인일 정도임.

○(김민열의원) 전력의 60%를 풍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풍력발전 설치 시 우리지역은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덴마크에서는 민원 사항은 없는지?

A: 덴마크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음. 그래서 풍력발전을 시민들이 사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설치하게 되었고 민원 발생이 점차 없어졌음.

○(김준곤의원) 풍력발전을 마을과 20km 이상 떨어진 바다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민들과의 충돌은 없는지?

A: 정부에서 일정한 보상이 있으며, 어장을 최대한 피해서 풍력발전 설치를 하여 어민과의 충돌은 없음.

○(김준곤의원) 국회의원들은 차량으로 출근하는지, 아니면 자전거로 출근하는지?

A: 직접 운전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대부분 국회의사당 근처에 거주해서 자전거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음.

○(김준곤의원)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은 몇 명인지?

A: 5명의 국회의원이 1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음. 개인적으로 비서를 둘 수 있지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고건의의원) 지역별로 세금 격차가 발생하는지?

A: 잘 사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지방세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 지원 금액을 달리하여 조정해 주고 있음.

시사점

- 국회의사당 정문 출입문 위 4개 조각의 부조 형태가 눈에 띈. 국민의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빠짐없이 살피라는 의미로 두통·치통·복통·이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형상화하고 있음.
- 국회의사당 내부는 벽지로 장식되어 있는데 거미, 달팽이처럼 느린 생물 모양의 무늬로 장식되어 있음. 의원들이 법률안 등을 심사하거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절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경청하고 숙고하라는 의미임.
-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

분야의 선두 주자임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친환경 정책(풍력발전기 추가 건설, 자전거 문화 확산, 2030년까지 모든 차를 전기차로 대체 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의회 방문 때 페트병에 담긴 물이 아닌 종이팩에 담긴 물을 보면서 정책을 만드는 의회에서부터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니 국민 전체로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친환경 정책들을 반감 없이 수용하고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음.

현장사진



국회의사당 외부



국회의사당 내부



관계자 브리핑



관계자 브리핑

2. 노르웨이 혁신청

기관소개

- 노르웨이 혁신청은 100% 국영기관으로 16개 부처 중 하나인 산업통상어업부에 속해 있음. 전국 각지에 12개의 지사가 있으며 서울을 비롯하여 해외 많은 나라에 지사가 있음. 노르웨이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노르웨이 혁신청에는 많은 분야의 업무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분야는 투어리즘으로 통상 Visit Norway로 불림.
 - 통계: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나라들이 많지만 노르웨이는 이 분야에서 완벽한 체계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느 호텔에 숙박했는지 등 1년간의 관광통계 자료를 전산화함.
 - 개발: 노르웨이를 소개하고 세계적으로 노르웨이를 관광측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함.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노르웨이다.’ 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있어야 하며 거기에 맞춘 부대시설이 갖추어져야 함. 그래서 노르웨이 혁신청은 외국에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동시에 국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B2C: 노르웨이 관광명소를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 미디어를 통해 보다 많은 관광명소를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주요 홍보 사항은 adventure(특별한 종목에 관광으로 행글라이딩, 레프팅, 사파리, 아이스호텔 등), energy activities(스키, 슬로프, 캠핑 등), food tourism, art and culture, city breaks(시내관광)임.
- B2B 부서는 세계적 회의 유치, 마라톤 등 이벤트, 국제적인 특별한 회의(정상회담), 레저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B2B는 홍보도 많이 하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관광 담당부서, 관계자 등에게 미디어 등을 통해 노르웨이에 대하여 교육을 함. 또한, 해외

관광업자 미팅 시 노르웨이 현지 호텔업계, 요식업계 등 관련자가 함께 미팅에 참석함.

-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일종의 파티 같은 행사를 개최하기도 함.
- 해외 방송에 광고 등 홍보 시 정부에서 지원을 함.
- 아시아 같은 장거리에 있는 나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있음.
- 체류형 관광, 여름에 한정된 관광을 벗어나기 위해 겨울상품 개발 (오로라, 허스키, 사파리 등)에 주력하고 있음.

질의/응답

○(이재학의원) 노르웨이에서 관광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점시책은 무엇인지?

A: 체류형 관광 추구임. 기존 관광이 주요 명소를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빠르게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다면, 체류형 관광은 한 장소에서 2~3일 또는 한 지역에서 10일 이상 장기간 머무르면서 로컬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고 로컬음식을 맛보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관광임. 이러한 체류형 관광으로 관광객들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김준곤의원) 홍보를 위해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했는데 올해도 계획이 있는지?

A: 올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오슬로에서 ‘NTW 2023 노르웨이 트래블 워크숍’ 명칭으로 행사가 개최됨. 올해 5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됐으며 전 세계 여행업계 관계자 700여명을 초청해 비즈니스 미팅을 함.

○(류제동의원)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중 ‘걸어서 세계속으로’가 있는데 예전에 노르웨이 촬영시 정부에서 지원이 있었는지?

A: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지만 자료수집, 인·허가 등 관련해서 도움이 있었을 듯함.

○(박규대의원) 노르웨이 관광분야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A: 장점은 천혜의 자연경관임. 피오르드로 대표되는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이 노르웨이를 방문하고 있음. 단점은 관광수요가 여름철에만 집중되는 계절의 한계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절별로 다양한 관광테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김준곤의원) 음식문화 분야 사업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지? 노르웨이 국적에 한정되어 있는지?

A: 국적에 관계없이 요식업 관련 등록·허가만 되면 누구나 혁신청에 사업 신청이 가능함. 다만, 노르웨이에 120개 넘는 국가와 관련된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신건호의원) 오슬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한국 지자체 있는지?

A: 없는듯한데 정확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음.

시사점

-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환경친화적인 여행을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음.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 관광산업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음. 정부, 지자체, 관련기업(숙박업, 요식업 등) 등이 협력하여 노르웨이를 홍보하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현장사진



노르웨이 혁신청



관계자 브리핑

3. 시니어복지센터

기관소개

- 개인이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시설로베르겐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르겐 시의 정책 틀 안에서 운영 중에 있음.
- 환자, 가족, 돌봄, 사랑의 경영가치 아래 입소자의 최대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함.
- 직원(5명), 도우미(4명), 의사(2명), 간호사(15명), 요양보호사(37명)가 수평적인 관계로써 46명의 입소자의 건강과 복지를 돕고 있음.
-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입소하고 있으며 80% 정도가 치매 환자임.
- 의사소통 시 중요사항은 평균 연령이 88세로 죽음에 가까운 실정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죽음을 오픈해서 대화하면서 죽음을 대비하고 많은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더 활동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줌.

질의/응답

○(한승욱의원) 입소자 치료비, 복지센터 운영비 등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A: 입소자 개인연금의 85%를 베르겐 시에서 기관으로 송금하는 구조이며 이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미용실, 발마사지 등 편의시설 이용은 입소자 개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남은 개인연금 15%를 사용하여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조영길의원)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스텝들 급여는 누가 주는지?

A: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소자 개인연금의 85%를 베르겐 시에서 거두어 기관으로 송금한다고 했는데 그중 80% 상당의 재원을 급여로 사용하고 있음.

○(전명숙의원) 요양보호사 1명당 돌보는 입소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A: 현재 46명의 입소자가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37명이 있음. 3교대 근무로 평균 요양보호사 3명당 10명의 입소자를 돌보는 실정임.

○(신건호의원)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지?

A: 노르웨이 베르겐 시 요양병원에 2,200여명 정도 입소가 가능한데 심사기준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상담 및 추천서 검토 등 심사를 거친 후 입소 여부를 최종결정함.

시사점

-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 보다는 누구나 죽는 사실을 오픈해서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게 하여 좀더 활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경영방침이 고령의 입소자들이 웃으면서 밝게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됨.
- 입소자들 개개인의 연금으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남은 가족들에 경제적 부담이 없는 요양병원 시스템 구조가 인상적임. 노르웨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개인연금 규모가 작아 시스템 구조를 당장 적용하기 힘들지만,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 요양병원도 시니어복지센터와 같은 운영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함.

현장사진



시니어복지센터



시니어복지센터 관계자 브리핑



시니어복지센터 시설 견학



시니어복지센터 입소자들 모습

4. 스톡홀름 시청

기관소개

- 매년 12월 노벨상 시상식 장소로 유명한 스톡홀름 시청사는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400주년(1923년)을 기념하여 건립한 건물임. 스웨덴의 건축가 랑나르 외스트베리가 설계를 맡았으며 이탈리아 베니스 마르폴로 광장에 있는 교회에서 영감을 얻었음. 1911년부터 1923년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약 800만 개에 달하는 벽돌과 1,800만 개 이상의 타일이 사용됨.
- 내부는 청색 홀과 금색 홀로 나뉘는데 청색 홀은 푸른색을 띤 바닥 타일로 장식되어 있으며 10,270개의 파이프로 구성된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음. 금색 홀에는 스웨덴이 역사를 소재로 한 대형 타일 모자이크 작품, 금박 장식을 한 모자이크 벽화가 설치되어 있음.

시사점

- 스톡홀름 청사는 행정과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 노벨상 수상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곳, 역사·문화·예술을 볼 수 있는 곳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청사 복도나 벽면 등 공간을 활용하여 우리군의 과거 사진, 예술가들의 작품, 상징 조형물 전시 등 청사 본연의 기능 외 다른 측면의 활용 방안이 요구됨.

현장사진



스톡홀름 시청사



스톡홀름 시청사 청색 홀



스톡홀름 시청사 금색 홀



스톡홀름 시청사 본 회의장

5. Enter Espoo 관계자 미팅

기관소개

- 엔터에스푸는 핀란드 에스푸 시 산하 공기업으로 해외기업들을 핀란드로 유치하여 알토대학과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매주 스타트업 기업들과 미팅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과 알토 대학의 기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함.
- 매년 11월 개최하는 ‘북유럽의 밤’ 행사는 핀란드 40개 벤처기업과

해외 300명의 투자자를 한곳에 모이게 하고 있음.

- 에스푸 시는 핀란드의 모든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노키아 등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과 유명대학 알토대학 등이 위치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 에스푸 시에 모여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기술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임.
- 핀란드에서 등록되는 특허 중 55% 이상이 에스푸 시 기업의 기술, 제품에서 발생하는데 혁신적인 기술 측면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알토대학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음.
- 특히, 전 세계의 스타트업, 투자자,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가해 스타트업과 관련된 투자, 기술교류, 사업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북유럽 최대의 창업 컨퍼런스 Slush 행사는 알토대학 창업동아리에서 시작될 만큼 알토대학은 스타트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며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곳으로 알려져 있음.
- 에스푸 시는 우주산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알토대학 내 우주산업과 관련된 2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 에스푸 시는 5G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기업들에게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시티를 추구하고 있음.
- 우주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유럽연합에서 자금을 모아 우주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에스푸시에 서버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 서버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이용하여 난방 등 재활용하기 위하여 에스푸 시 전기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협업을 함.
- 이 밖에도 신소재(공기를 이용하여 우주비행사를 위한 식량개발) 만드는 기업도 에스푸 시에 위치하고 있음.

질의/응답

○(고건의원) 알토대학에서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A: 헬싱키 공대, 예술디자인대, 경제대의 경쟁력 있는 세 개 대학이 통합됨. 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부처, 기업, 연구소까지 대학 내 위치하여 창업을 위한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됨. 알토에스, 스타트업사우나, 슬러시 등 동아리를 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창업 활동을 진행함.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알토대학이 스타트업 기업가들을 배출하는데 성공적인 환경을 조성함.

○(류제동의원) 규제나 법칙은 국가에서 하는지? 시의회에서 하는지?

A: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하지만, 주요 정책에 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함. 일례로 탄소제로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는 2035년까지를 목표로 하였지만 에스푸 시는 2030년까지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신건호의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핀란드는 사고 발생이 없는지?

A: 현재까지는 사고 발생이 없음.

○(고건의원) 우주항공산업 관련 한국과의 협업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A: 위성 관련해서 의향은 있음. 핀란드는 인공위성 촬영 기술이 발달되어 있음. 하지만, 협약은 국가 간 사업이므로 대답하기 어려움.

시사점

○ 우리군에 조성 예정인 우주발사체클러스터 단지가 완공되면 알토대학

내 입주하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 스타트업들과 우리군 우주항공 산업과의 협업 추진 및 우주항공과 관련된 많은 스타트업들이 우리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연구가 필요함.

또한, 대한민국 최초는 아니지만, 우주항공 관련 스타트업들의 Slush 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주항공 분야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함.

* 지난 6월 29일 부산광역시가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진출’을 주제로 BUSAN Slush’D를 개최함.

○ 스타트업의 천국 핀란드의 중심에는 알토대학이 있음. 알토대학은 설립 목표부터 ‘혁신인재 양성과 창업’이었으며 이를 위해 헬싱키 공대, 헬싱키 예술디자인대, 헬싱키 경제대를 통합하였음. 각기 다른 분야의 사고방식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창업에 있어 필요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구상으로 이어짐.

우리군에 알토대학과 같은 대학을 설립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졸업생을 모집할 수는 있음. 공유 오피스 등 졸업생들을 우리군으로 끌어들이 청년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함.

현장사진



엔터에스푸 관계자와 미팅 후



엔터에스푸 관계자 브리핑

IV

북유럽 주요 현장 방문

1. 덴마크(게피온분수 및 인어공주 동상)

방문지소개

- 게피온 분수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덴마크의 선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수로 다산·농업·쟁기질과 관련된 북유럽의 여신 게피온을 묘사하고 있음.
분수에는 쟁기를 끄는 네 마리의 소가 있는 청동 조각상이 있는데 북유럽 신화에 따르면 게피온은 그녀의 네 아들을 황소로 변형시켜 스웨덴 땅을 경작하는데 경작한 영토를 바다에 던져 코펜하겐이 위치한 질란드 섬을 만들었다고 함.
- 인어공주 동상은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에서 영감을 얻은 조각가 에릭센이 자신의 부인을 모델로 하여 1913년에 만들었음. 한동안 반달리즘의 희생물이 되어 머리와 팔이 잘려 나가고 페인트를 뒤집어쓰는 등의 온갖 수난을 겪기도 함. 그래서 지금은 인어공주 상의 목과 팔에는 땀질이 되어 있는 상태임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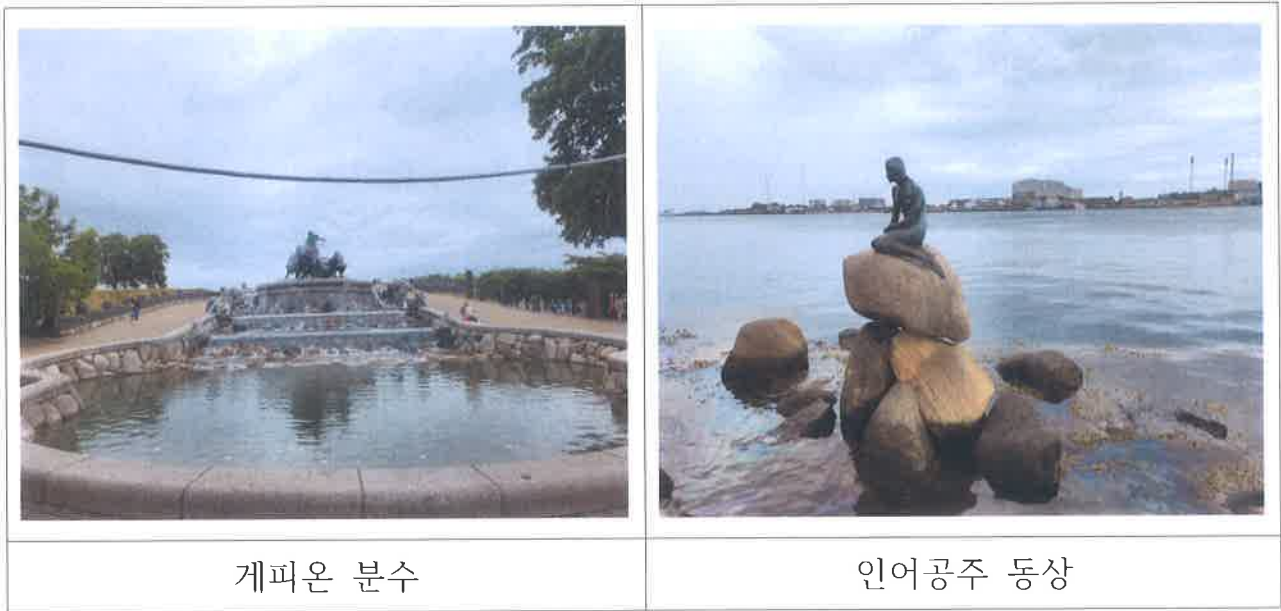
- 추모를 위해 세워진 분수대에 북유럽 신화를 스토리텔링함으로써 잠시 보고 지나칠 분수를 인증샷을 찍는 명소로 탈바꿈하는 광경을 보며 우리가 가진 문화자원을 단순히 보여주기보다는 재구성하고 스토리텔링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변화시킬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함.
- 랜드마크가 가지는 상징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었음. 한적한 해안가

바위 위에 놓인 조각상 하나. “이게 다야?” 의문을 품을 정도로 특별한게 없는 이 조각상을 보기 위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세계 곳곳의 해안가에 인어공주 동상이 세워져 있음.

특별한게 없는 조각상을 잘 꾸미고 마케팅하여 특별한게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코펜하겐을 상징하는 하나의 랜드마크로 변화시킨 덴마크의 저력을 보면서 랜드마크가 가지는 힘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음.

우리군도 주요 관광명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함.

현장사진



2-1. 노르웨이 (비겔란 공원 및 오슬로 시청사)

방문지소개

- 비겔란 공원은 ‘북구의 로댕’이라 불리는 비겔란의 인생 조각들이 가득한 공원임. 내부의 모든 조각들은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그중 최고는 공원 중심에 서 있는 <모로리탄>으로

1929년부터 약 14년간 3명의 석공에 의해 만들어짐. 14m의 조각 안에 있는 121명의 인간 군상은 '영원한 삶의 굴레'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36개의 동상이 <모로리탄>을 호위하듯이 둘러싸고 있음.

또한, 공원 초입의 다리 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형상화한 58개의 조각이 세워져 있는데 특히 공원의 마스코트 격인 '화난 아기' 동상이 가장 유명함.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동상처럼 반달리즘의 희생물이 되어 페인트를 뒤집어쓰고, 다리가 잘리는 등의 수난을 겪음.

- 오슬로 시청사는 오슬로 시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청사로 매년 12월 10일 노벨평화상 수상식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함. 지금의 시청사 건물은 오슬로 시 창립 900주년을 기념해 세운 건물로 1931년 착공에 들어갔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1950년에 이르러 완공됨. 붉은 벽돌로 쌓은 대칭형 건물은 오슬로의 피오르드를 바라보고 있으며 건물 전면에는 오슬로의 상징인 백조상이 있는 분수가 있음.

노르웨이와 오슬로 시의 신화와 역사 등을 주제로 한 부조가 늘어서 있는 입구와 화랑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벽화로 장식된 홀이 나오는데 이 홀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며, 2000년에는 우리나라의 故김대중 대통령이 이곳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함.

시사점

- 비겔란 공원은 재능있는 예술가가 공공의 지원을 받았을 때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임. 오슬로시는 한 예술가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 예술가가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10만평의 부지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였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없어진

예술가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멋진 공원이 탄생함.

지역 예술가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예술품과 자연경관이 조화로운 공공 예술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민 문화생활 향유 기회의 확대와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좋은 사례이며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예술가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즐기고 힐링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우리군도 지역의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하여 지역의 재능있는 예술가들에게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오슬로 시청사는 1950년부터 현재까지 오슬로시의 행정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요한 이벤트나 축제 등의 장소로도 사용됨. 특히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1층 홀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결혼식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에는 소외 받은 시민들을 초대하여 무료 저녁 만찬을 열기도 함.

시청사 앞에는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리고, 문화 행사와 음악 공연도 개최되는 등 행정과 의회의 기능을 넘어 대중의 장소로서 역할을 함.

또한, 노르웨이와 오슬로시의 신화와 역사가 담겨진 내용의 많은 프레스코화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줌.

오슬로 시청사를 답사하면서 공공건축물이 단순히 행정적인 기능을 넘어 시민들에게 개방됨으로써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으며 건축과 도시계획,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었음.

추후, 공공건물 설립 시 군민 및 관광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현장사진



비겔란 조각공원 입구



비겔란 조각공원 전경



모노리탄



오슬로 시청사 단체사진



시청사에서 결혼식 후 나오는 하객들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홀



오슬로 시의회 본회의장

2-2. 노르웨이(게이랑에르피오르드와 달스니바 전망대)

방문지소개

- 게이랑에르피오르드는 노르웨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5km 길이로 2005년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음. 깊고 푸른 바다, 무성한 녹지, 바다에서 우뚝 솟아올라 병풍처럼 늘어서 있는 웅장한 산줄기와 절벽 그리고 절벽에서 쏟아지는 폭포의 물줄기가 어우러져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음.
- 달스니바 전망대는 해발 1,476m의 달스니바 산에 있는 전망대로 게이랑에르피오르드 주변의 웅장한 경관을 전망할 수 있음.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게이랑에르피오르드를 둘러싸고 있는 빙하호수, 폭포, 계곡, 절벽 등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며 전망대로 오르는 산의 중턱에는 2km² 면적의 빙하 호수인 '듀프호'가 있음. 매년 이곳에서는 게이랑에르 프럼 피오르 투 서밋이라는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는데 게이랑에르 마을에서 시작해 달스니바 전망대 정상에 이르는 21km 구간에서 하프마라톤·자전거대회·경보대회 등이 펼쳐짐. 맑은 날에는 피오르의 깊은 협곡과 높은 산, 얼음 덮인 산맥 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최고의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

시사점

- 페리와 크루즈에서 내려 트레킹, 자전거 바이킹, 카약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노르웨이가 가진 자연경관 자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음.
- 또한, 자연경관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인위적인 다리 건설이나

도로개설(확장)을 철저히 지양하고 연안 페리까지 전기로 움직이는 등 누구보다 앞서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음.

- 우리군도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자연경관 자산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3.8면 해안선을 자전거 및 도보로 끊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기존 남파랑길과 연계하여 해양경관을 활용한 트레킹 코스 정비가 필요함. 이를 통해 마라톤대회, 경보대회 등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여 자연스럽게 홍보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현장사진

	
<p>게이랑에르 피오르드(7자매 폭포)</p>	<p>게이랑에르 마을 전경</p>
	
<p>듀프호</p>	<p>달스니바 전망대</p>

3. 스웨덴(바사 박물관)

방문지소개

- 바사 박물관은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전함으로 구스타브 2세가 재위하였던 1625년에 건조되어 1628년 8월 10일 첫 항해때 침몰한 전함 ‘바사’호가 전시되어 있음.
- ‘바사’호는 구스타브 2세가 재위하던 1625년에 건조된 호화 전함으로 길이 69m, 최대 폭 11.7m, 높이 52.2m, 배수량 1,210t, 대포 64문, 450명이 탑승하게 건조됨. 1628년 군사적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스톡홀름에서 폴란드로 첫 항해에 나섰지만 계획보다 많은 대포와 포탄을 실는 바람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돌풍에 가라앉고 말았음. 침몰한 ‘바사’호는 1961년에 발견된 후 인양 및 보존 작업이 이루어져 지금은 98%가 복원되어 바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음.
- 배의 선박 바닥을 받치는 재목인 용골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총 6곳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바사’호를 감상할 수 있으며, 총 4층으로 이루어져 각 층에서는 ‘바사’호의 준공, 취항, 침몰, 인양의 각 과정을 설명함.

시사점

- 특별한 주제 없이 시대순으로 유물을 나열한 우리나라 박물관과 달리 ‘바사’호 배 하나의 주제로 관람객의 몰입을 이끌어낸 점이 인상적임.
- 귀중한 역사적 자산을 인양하여 복원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바사 박물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음. 역사 유적이거나 유물 발굴 시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영하면 좋을 듯 함.
- ‘실패에서 배운다.’ 침몰한 ‘바사’호를 오랜 시간을 들여 인양, 복원하여 박물관으로 조성하여 만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봄.

현장사진



복원된 바사호



바사호 단면 모형

4. 핀란드(시벨리우스 공원 및 원로원 광장)

방문지소개

- 시벨리우스 공원은 핀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시벨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임. 공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4톤의 강철로 만든 파이프 오르간 모양의 시벨리우스 기념비와 그 옆의 시벨리우스 두상임. 핀란드의 대표적인 여류 조각가 엘라 힐투넨이 1967년 시벨리우스 사후 10주년을 기념해 만든 것임. 은빛으로 빛나는 600개의 강철 파이프는 마치 시벨리우스의 음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음.
- 원로원 광장은 헬싱키 구시가지의 중심으로 1818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독일 건축가 카를 루빙 엔겔이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1세 명으로 조성하였음.
약 40만 개의 화강석이 깔린 조형미 있는 정사각형 광장으로 중앙에는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로 2세의 동상이 위치하고 있음. 광장 내에 상원 건물인 원로원과 헬싱키 대성당이 있으며 주변으로 핀란드 박물관, 헬싱키 시립도서관 등의 건물이 있음.

원로원 광장은 다양한 이벤트나 축제의 장소로 이용되며, 핀란드의 중요한 행사들이 이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등 역사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하며, 헬싱키의 문화와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임.

시사점

- 시벨리우스 공원은 어디에나 있을 듯한 공원에 민족을 대표하는 작곡가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와 두상을 조각하고 그의 이름을 네이밍 하면서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남. ‘핀란드아’로 러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서 핀란드인들의 독립의지를 고취시킨 시벨리우스를 기념하는 공원으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핀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장소가 되었음.

우리군도 공원을 조성할 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책로, 쉼터 등 공원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군을 대표하는 의미(역사적 인물, 특색, BI 등)를 부여할 수 있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구상하면 좋을 것 같음.

- 고대부터 광장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생활하는 공간이었음.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는 광장이 대화와 토론의 마당이자 화합의 장소로서 기능하여, 도시 생활의 중심으로 고대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터전이었음.

헬싱키 광장은 광장을 중심으로 헬싱키 대성당, 국립도서관, 정부청사, 총리 집무실, 대학교 등 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음. 러시아 지배에서

벗어난 핀란드 사람들은 이 광장을 중심으로 모여 자신들이 원하는 핀란드에 대하여 대화하고 토론하며 화합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 핀란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가?’ 추측해 봄.

우리군에도 중요한 군정 정책을 결정할 때 공개된 공간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고 때로는 다양한 행사,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광장문화에 대해 구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현장사진



시벨리우스 기념비(파이프 오르간)



원로원 광장

V 의정활동 정책검토 보고서

□ 의정활동 정책검토 보고서(이재학 의장) *이재학* (서명)

활동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활동목적	▶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북유럽(노르웨이)의 관광정책을 배우고 주요 명소 답사를 통해 우리지역 관광활성화 방향 설정
활동기간	2023. 6. 26.(월) ~ 7. 4.(화)
검토의견	

□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하는 잊을 수 없는 액티비티

-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연경관'의 자산을 활용하여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의 스테운스클린트와 바덴해, 스웨덴·핀란드의 크바르켄군도와 하이코스트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관광명소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히, 피오르드로 대표되는 노르웨이의 자연경관은 아름다움을 넘어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그리고 이런 자연경관을 창문 너머로만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액티비티(트레킹, 자전거 트레킹, 카약, 캠핑 등)를 체험하면서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노르웨이 관광의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 플롬 산악열차 철로 옆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들, 빙하가 만든 최고의 예술작품 피오르드를 따라 트레킹하는 사람들, 피오르드 줄기 속에서 카약을 즐기는 사람들, 절벽이 병풍처럼 휘두르고 있는 강가에서 캠핑하는 사람들 등 자연의 경이로움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액티비티 기반 시설 조성

-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기반 시설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지역도 노르웨이 못지않은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3.8면의 해안선과 몇 백개의 섬들이 이루고 있는 해안 경관은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런 해안 경관을 눈으로만 즐기기보다는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 기반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기존 남파랑 길, 지역별로 개발 중인 둘레길과 연계하여 해안도로를 도중에 끊김 없이 도보, 자전거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라남도와의 업무 추진을 통해 미 개통된 해안가 지방 도로를 조속히 개통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 또한, 어촌 체험이 가능한 해안가 주요 마을에 전기자전거 대여점, 공중 화장실 및 샤워실, 공동 취사장, 휴게 공간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즐기면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기반 시설을 토대로 3.8면 해안도로에서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경보대회, 마라톤, 자전거 대회 등)를 지역 행사 또는 축제(거금도 갯것 한상 축제, 남양면 선정마을 머드림픽 등)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거금도 갯것 한상 축제



선정마을 머드림픽

□ 남해안 관광벨트를 잇는 연안 페리사업 추진

- 바다에서 우뚝 솟은 절벽과 절벽에서 쏟아지는 빙하 폭포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피오르드를 유람선에서 보고 있으니 우리 지역의 해안가가 오버랩 된다. 다도해에 병풍처럼 서 있는 크고 작은 섬들과 해안 절벽, 햇살이 비치는 푸른 바다가 떠오른다.
- 노르웨이에 피오르드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리아스식 해안과 섬들이 있다. 페리에 탑승하여 아름다운 피오르드를 보면서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듯이 다도해와 한려해상의 절경을 보면서 남해안의 여러 자치단체의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연안 페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특히, 페리에 관광버스도 선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단체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주요 정착지에서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기동성까지 살릴 수 있어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버스 선적이 가능한 연안 페리

□ 의정활동 정책검토 보고서(김민열 의원)

김민열(서명)

활동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활동목적	▶ 북유럽(덴마크) 풍력발전 정책 자료수집 및 군정 접목 방안 강구
활동기간	2023. 6. 26.(월) ~ 7. 4.(화)

검토의견

□ 덴마크 풍력발전 현황

- 덴마크는 1991년 세계 최초로 해상풍력 발전을 설치할 정도로 이른 시기부터 해상풍력 발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오늘날 해상풍력 발전의 선도국가로 자리함. 2020년 기준 유럽 내 해상풍력발전 누적용량 5위에 위치함. 전체 발전량의 약 60%가량을 풍력발전에서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산업에서 풍력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덴마크 정부가 50.1%의 지분을 보유한 해상풍력 기업인 Orsted사는 유럽 내 해상풍력 발전소들의 17%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해상 풍력 터빈제조 기업 중 하나인 Vestas사도 덴마크 국적임.
- 에너지 아일랜드* 및 질란드(코펜하겐이 위치한 섬)에 풍력발전기 추가 설치 계획 중이며, 풍력발전으로 9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생산할 예정임.

* 발트해와 북해에 건설 예정인 세계 최초의 에너지 섬 프로젝트

□ 덴마크 풍력발전의 원동력 ‘원스톱샵’

- 덴마크에서 풍력발전이 급증한 이유를 살펴보면 ‘원스톱샵’ 도입 등 입법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함. 풍력인·허가 과정에는 에너지, 교통, 환경, 문화, 국방, 지자체까지 여러 관계부처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덴마크는 각기 흩어진 인허가 권한을 한곳에 모아 2011년부터 ‘원스톱샵’을 시행함. 덴마크 에너지청(DEA)에 풍력발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권한을 모으고 에너지청이 입지 선정부터 사전입지조사, 시추조사, 환경영향 조사 등까지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10년안에 풍력발전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함.

- 인허가 절차 및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청이 관련자들과 소통하는 단일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을 줄여 신속 처리함. 기업들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사전조사 실시허가, 해상풍력 터빈 설치 면허, 풍력사용 라이선스, 전기생산 승인의 4가지 허가를 에너지청으로부터 취득.

※ 덴마크 인허가 소요기간은 평균 34개월(유럽 평균 42개월)

□ 우리지역 풍력발전단지 로드맵 구축

- 해상풍력 인허가는 많은 기일을 요구하고 있음. 에너지청 단일 창구에서 진행하는 덴마크도 평균 34개월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기간이 필요함. 단일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기관이 부재한 우리의 경우 유럽 여러 나라에 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지역 풍력발전단지 로드맵 구축이 필요함.
- 우리지역에서 충분한 풍속이 있어 발전량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군통신및레이더 영향평가, 어업피해영향조사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미리 묻고,
-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내륙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 등)을 강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민들과 군민들이 사업을 공유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요구됨.'
- 이와 함께 보상책, 인허가 등의 규제 최소화, 투자 기업의 지원방안 등 정책을 정비해야 함.
- 또한, 유럽 여러 나라들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의 심도 있는 자료 연구 및 풍력단지 조성 예정인 신안군의 사례 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 이를 통해, 언제든지 우리지역에 풍력발전단지 투자가 있을 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풍력발전단지 로드맵 구축이 필요함.

□ 의정활동 정책검토 보고서(전명숙 의원  (서명))

활동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활동목적	▶ 선진의정의 중심지 덴마크의회 방문에서 군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탐색 ▶ 베르겐 시 시니어복지센터 방문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복지시설 구상
활동기간	2023. 6. 26.(월) ~ 7. 4.(화)

검토의견

□ 선진의정의 중심지 덴마크 의회, 군민을 위한 의회 구상

○ 덴마크 의회가 선진의정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 오늘날 덴마크의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의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폴케외데’라는 정치축제를 개최하고 여·야 정당들이 이념을 넘어 협치하는 모습은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덴마크의회가 선진 의정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 동상, 조각상, 벽지로 대변되는 덴마크 정치의 모습일 것이다.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는 의회를 설립하여 자신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떠난 프레데릭 7세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동상에는 Folks kærlighed er min styrke (국민의 사랑은 나의 힘) 문구가 새겨져 있다.
국회의사당 정문 출입문 위에는 국민의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빠짐 없이 살피라는 의미로 두통·치통·복통·이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다.
국회의사당 내부는 의원들이 법률안 등을 심사하거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절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경청하고 숙고하라는 의미로 달팽이처럼 느린 생물 모양의 무늬로 벽지를 장식하였다고 한다.
- 그리고 경청으로 대변되는 덴마크 정치의 정신일 것이다. 덴마크의회는 듣는 것에 많은 관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한다.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각계 각층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

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일 경우 의회로 직접 시민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정도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열린 의회 구축

- 귀가 아플 만큼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조례(규칙)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군민들이 인지하지 못하여 다양한 의견제시도, 열띤 토론도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의회로 시민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는 덴마크 의회처럼 우리도 군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군민들과 관련 사회·기관 단체의 의견을 귀가 아플 만큼 듣고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그리고 이가 아플 만큼 토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장문화와 비견될 수 있는 공청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광장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대화와 토론의 마당이자 화합의 장소로서 고대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터전이었다. 오늘날에는 집회의 장소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광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공청회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많은 군민들과 관련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이가 아플 만큼 치열하게 토론하며 그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를 구상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중심으로 토론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 또한, 머리가 아플 만큼 심사숙고해야 한다.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정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얼마나 많은 법률이나 정책을 제안했는지, 질문 및 5분 발언 등은 몇 번 했는지 등 수치로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심도 있게 법률, 정책을 심사숙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태다. 법률과 정책 등은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하여 머리가 아플 만큼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 공청회·협의회·간담회 및 의회 초청 등 군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귀가 아플 만큼 군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가 아플 만큼 토론하며, 머리가 아플 만큼 심사숙고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시니어와 실버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종합복지타운 구상

○ 평화로운 분위기가 가득한 시니어복지센터

- 평균 연령 88세로 삶보다 죽음에 더 가까운 입소자들. 하지만 입소자들의 얼굴에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밝은 미소만 가득했다. 죽음을 감추고 모른척하기보다는 입소자들에게 직접 알리고 대비하면서 남은 삶을 보다 가치 있게 활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복지센터의 운영 방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입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동 시설은 물론 미용실, 마사지샵 등 편의시설도 센터 내 위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요양 병원에 입소하여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는 생각보다는 계속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듯 느껴졌다.
- 또한, 입소부터 생활비까지 개인의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는 요양병원 시스템 구조가 운영방식, 시설과 잘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하였다. 앞으로 추구해야 할 요양병원의 좋은 사례 처럼 여겨졌다.

○ 시니어주거복지의 새로운 트렌드 시니어타운(고령자복지주택)

- 우리나라의 시니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요양원(실버타운) 및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의 수요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자녀가 부모를 직접 돌볼 수 없을 때 찾게 되는 시설로 실버 세대를 위한 시설이다. 본인 스스로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시니어 세대와는 거리가 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시니어 세대를 위한 주거와 케어,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민영에서 시니어 케어 관련 기업과 건설·건축 관련 기업이 협력하여 많은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시니어타운은 주거는 물론 의료시설과 체력단련 시설, 각종 편의시설 및 상업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2019년 영암군, 2021년 완도군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 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의 저층부에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이,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이 위치하게 된다. 우리 지역도 2023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할 예정이다.

- 이처럼, 공공과 민영 모두 시니어 세대를 위하여 주거에서 의료, 돌봄까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등 시니어타운(고령자복지주택)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시니어에서 실버까지 누구나 꿈꾸는 종합복지타운

-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있는 우리 지역은 시니어와 실버 세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시설 등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필요한 지역이다. 실버 세대를 위한 시설(요양원, 요양병원)은 어느 정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태며, 시니어 세대를 위한 시설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복지

주택은 앞으로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와 의료, 돌봄, 여가 등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기존 시설 및 사업들과 연계가 이루어지면 지역사회 복지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고령자복지주택을 늘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시니어타운을 주변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베르겐 시의 시니어복지센터 같이 운영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요양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주거와 의료, 돌봄까지 한 곳에서 올인원으로 진행될 수 있는 종합복지타운 설립을 위한 제도와 정책 등 정비가 필요하다.

□ 의정활동 정책검토 보고서(박규대 의원)

박규대

활동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활동목적	▶ 노키아의 몰락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한 핀란드의 도전적인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우리군이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 및 클러스터의 효율적 구축 방안 모색
활동기간	2023. 6. 26.(월) ~ 7. 4.(화)

검토의견

□ **노키아 쇠락후 정체된 산업, 스타트업 육성으로 되살아나다**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이 있다. 핀란드에는 한 때 핀란드 법인세의 23%를 담당했던 노키아가 있었다. 2000년대 후반 노키아가 급격히 쇠락하자 전 세계 경제인들은 핀란드 경제의 몰락이 머지 않았다고 내다봤었다. 그러나 그 예상을 뒤엎고 핀란드는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 스타트업에 대한 핀란드의 고민은 2000년대 후반 학계·경제계에서 제기된 ‘핀란드 패러독스’에서 시작됐다. 핀란드 패러독스는 에르코 아우티오가 주창한 개념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연구개발 (R&D) 투자, 교육 경쟁력 등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기업이 없다는 위기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 하나하나 요소만 보았을 때 최고 수준임에 틀림 없었지만, 각각의 요소를 통합하는게 문제였고 알토대라는 새로운 형태의 스타트업 특화대학의 출범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알토대는 헬싱키공대, 헬싱키경제대, 헬싱키 예술디자인대를 하나로 합병해 만든 대학으로 학과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된 대학으로 기술, 디자인, 경영 등 세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할 수 있었다.

□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 우리군은 올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로 확정을 한 상태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멀고 멀다. 우선, 교통이 문제다. 현재 후보지는 봉래면(나로도)으로 고흥읍과 자차로 40분이 걸리며 반듯한 고속화도로가 아니다. 심지어 인재풀을 양성하는 대학이 위치한 인근 도시인 순천이나 광주까지는 2시간이 이상 소요된다. IT의 발달로 인해 영상회의나 다른 대체 방안이 있지만 일은 서로 부대끼고 머리를 실질적으로 맞대었을 때 시너지효과가 배이상으로 나는 법이다. 그러기 위해선 고속화철도, 국가 산업 고속화도로 등 교통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의 재원이나 판단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정부에 피력하여 교통시설 확충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핀란드 사례에서 핀란드 알토대학은 수도인 헬싱키 인근 도시에 위치함으로써 교통과 인력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다. 우리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알토대학과 같은 융복합대학을 유치할 순 없지만 적어도 교통여건의 개선을 통해 인근의 산학협력기관이나 각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고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시설을 확충해야만 한다.

□ 다양한 학문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군에서 핀란드의 알토대학과 같은 융복합대학을 유치할 순 없지만 공유오피스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은 가능하다. 행정학 개념 중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간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연구하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서 머리를 맞댈 때 배 이상의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것인데 바로 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고흥군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 관련 사업을 좀 더 거미줄처럼 클러스터화 할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 의정활동 정책검토 보고서(조영길 의원)

조영길

활동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활동목적	▶ 스타트업 기업의 중심지 에스푸 시(알토대학)를 방문하여 우리지역 우주·항공·드론 산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위한 자료 수집 등
활동기간	2023. 6. 26.(월) ~ 7. 4.(화)

검토의견

□ **에스푸 시와 알토대학, 그리고 스타트업**

- 에스푸 시는 핀란드를 넘어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물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에스푸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알토대학이 있다. 매년 알토대학 출신이 만든 스타트업 기업이 100여개에 달할 정도다.
- 헬싱키 공대·예술디자인대·경제대가 통합되어 탄생한 알토대학은 교과과정 자체가 실습과 팀 프로젝트 위주로 되어 있으며 교과과정 기획물이 스타트업 창업으로 연계되고 있다.
- 또한, 알토에스, 스타트업사우나, 헬테크, 슬러쉬 등 학생들이 주도하는 창업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창업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다.
- 알토대학 내 기업과 연구소 중앙·정부 산하기관까지 입주하고 있어 스타트업을 위한 최적의 생태계가 갖추어져 있다.

□ **고흥의 알토대학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 지난 4월 공모사업을 통해 ‘고흥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예정이다. ‘고흥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체는 물론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해 공용사무실과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문화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특히, 공용사무실은 한국형 발사체 관련 기업과 국가산업단지 입주 대상 기업들이 고흥군에 장기간 상주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흥읍 일원에 구축되는 최첨단 사무공간이다.
- 이 공용사무실을 관련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주·항공·드론 스타트업 기업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고 관련 기업들과 교류·협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에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Accelerator Program)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여 전국 우주·항공·드론 관련 학과생, 졸업생, 동아리 등이 함께 모여 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하고 기업들과의 멘토링, 피드백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From Idea to Impact. 알토대학 내 스타트업센터 복도 곳곳에 비치된 배너 속 문구가 머릿속에 생생히 떠오른다.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가 블루오션 우주·항공·드론 산업을 주도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흥군의 알토대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 의정활동 정책검토 보고서(류제동 의원)

(서명)



활동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활동목적	■ 덴마크 복지정책(보육, 교육) 자료수집 및 군정 접목 방안 연구
활동기간	2023. 6. 26.(월) ~ 7. 4.(화)

검토의견

□ 복지정책(보육 및 교육)의 선두 주자

○ 덴마크는 잘 정비된 복지정책 등 복지사회 선두 주자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보육 및 교육 분야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1) **보육정책:** 덴마크는 보육에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무료보육: 덴마크는 대다수의 보육시설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더 나은 경력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세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육시설의 질: 덴마크는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보육교사들의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육시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족수당 등 지원: 보육 서비스 이용시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데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족수당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군도 다양한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며, 보다 많은 보육정책이

추진되어 부담없이 둘째, 셋째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덴마크처럼 자녀가 출생했을 때 가정과 직장에서 보육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꼼꼼한 보육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을 당장 늘리기는 힘들지만 감소율 제로를 목표로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2) 교육정책: 덴마크는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료교육, 교육의 질 향상,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등이 주요 정책입니다.

- 무료교육: 덴마크는 공립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단계에 해당합니다.
- 질 높은 교육: 덴마크 교육 체계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참여와 창의성을 존중하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사의 전문성 강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 등 교사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복지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모두 추진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은 멈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의 현실은 대학생 한명을 교육 시키기에도 매우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장학금의 과감한 확대(4년 전액 장학금)와 주거비(원룸비용 등) 지원으로 부모님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지만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가질 것이며 추후 은퇴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군은 한때 20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1/4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최근 다양한 정책으로 그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민선8기 목표인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부담 없이 자녀를 낳고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학비 부담 없이 마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 의정활동 정책검토 보고서(한승욱 의원)

한승욱

활동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활동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유럽 관광정책 및 답사를 통한 고흥군 정책에 반영 ■ 북유럽의 노인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기간	2023. 6. 26.(월) ~ 7. 4.(화)

검토의견

□ 노르웨이 혁신청

1) 혁신청의 역할

- 노르웨이의 관광명소 홍보 및 세계적인 행사 유치를 통한 관광객 유치
- 지역에 맞는 관광 이벤트를 개발
- 정부 지자체 및 관광 관련 업체와의 유기적인 회의를 통한 관광 활성화 모색
- 관광객 통계작성 등

2) 미디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 ‘걸어서 세계속으로’ 프로그램은 다양한 나라에 대한 문화·관광 등 소개해 주었고 최근 ‘텐트 밖은 유럽’ 등 여러 여행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음. 또한, 많은 여행 유튜브를 통해 가고 싶은 지역에 대한 많은 여행 정보를 습득하고 있음.
- 이처럼, TV프로그램, 유튜브 등 미디어를 활용하여 우리군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홍보하여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3) 관광통계 자료를 활용한 관광객 트렌드 분석

- 세분화된 통계자료(월별 방문객 수, 주요 방문지, 이용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를 관련업체들과 협력하여 수집·작성 및 분석하여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성향 파악 등 트렌드 분석이 필요함. 이를 토대로 관광객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 그룹별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 코스 개발 등 관광정책 추진이 필요함.

- ‘지붕없는 미술관’ 이라 불릴만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홍보 및 사후관리(통계분석 등)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부서(관광정책실 등)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시니어 복지센터

1) 복지센터의 역할

- 우리나라 요양병원과 유사한 역할을 함
-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함께 입소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고 있음
- 활동적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입소자들이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입소자 개인연금의 80%를 운영비로 지원받아 주거와 의료 및 돌봄까지 제공하고 있음

2) 시니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연구

-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 시니어 인구가 매우 높은 편으로 보다 적극적인 시니어 인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거, 의료, 복지 등 전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연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3)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평균 수명 및 고령층 인구의 증대로 인하여 요양시설(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요양시설 입소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작용하고 있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내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며, 제한과 규칙이 많은 곳에 갇혀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요양시설에 대하여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음.
- 베르겐 시의 시니어 복지센터는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보다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음.
시설이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보내는 곳이라는 인식보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좀 더 활동적인 삶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유지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임.
- 가정집과 같은 심리적·정서적 편안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고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곳이 아닌, 더 편안한 여생 속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곳으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속적인 의사소통 방안 마련, 홍보 등 필요함.

□ 의정활동 정책검토 보고서(신건호 의원)

신건호(1명)

활동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활동목적	▶ 북유럽 주요 국가들의 영유아 제도 자료 수집 및 실생활 탐구를 통한 출산율 증가 방안 강구
활동기간	2023. 6. 26.(월) ~ 7. 4.(화)

검토의견

□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라떼파파’. 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의미하는 말로 남녀 공동육아 문화가 자리 잡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육아 제도의 상징적인 단어다. 이 상징적인 단어가 정착하기 위해 많은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덴마크는 Day care 정책을 통해 1살 때부터 아이돌봄 서비스(1명이 5~6명 아이를 케어하며 비용의 70%는 정부에서 보조) 이용이 가능하다. 노르웨이는 출산휴가 1년이 주어지는데 엄마가 9개월, 아빠가 3개월 평균 사용하고 있으며 1년 후에는 영유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스웨덴은 부모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 정책을 통해 남성 육아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 또한, 오슬로도서관의 경우 다양한 편의시설에 함께 위치하고 있으며, 아이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아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오슬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요 편의시설에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노키즈존이 점점 늘어나는 우리나라 현실과 많은 비교가 된다.
- 위와 같은 제도나 정책 등을 통해 여성에 치중된 육아 부담을 남성이 함께 함으로써 분담시켜 주고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을 아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둘째, 셋째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듯 보인다.



아빠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



도서관 내 아이들을 위한 공간

- 많은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 등을 비롯한 출산 관련 재정 지원을 통한 출산율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수 있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출산율이 눈에 띄게 증대될지는 미지수다. 출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출산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 생각한다.
- 연수기간 동안 유모차를 끄는 아빠의 모습과 주요 시설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 두 요소가 오늘날 '라떼파파'로 통하는 북유럽 육아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 5년 뒤, 10년 뒤 '유자파파', '석류파파'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수 있도록 남성이 함께 육아를 책임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언제·어디서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넘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으로 출산율 증대를 도모해야겠다.

□ 의정활동 정책검토 보고서(김준곤 의원)

김준곤 (서명)

활동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활동목적	▶ 북유럽 4개국의 지역현황(각종 정책경제문화인프라관광 등)을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접목 ▶ 우리 군의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제안과 실효성있는 대안제시 등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활동기간	2023. 6. 26.(월) ~ 7. 4.(화)

검토의견

□ 지리적 여건 극복을 통한 고흥만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 민선8기 고흥군에서는 고흥만 일원을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면서 고흥만수변노을공원에 캠핑장, 물놀이장, 산책로와 함께, 2.8km의 방조제 노후 방호벽을 일곱색깔 무지개색으로 단장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포토스팟을 제공하고 있으며
- 인근에는 대형 숙박시설, 우주항공센터, 드론센터, 스마트팜혁신밸리 등이 있는 천혜의 관광 요새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고흥관광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지리적 여건의 취약성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과제의 하나임



- 연수기간 중 노르웨이 4대 피요르드 중 하나인 송네 피요르드 현장 방문 시 만헬러-포드네스 구간을 이동하는 유람선을 탑승하게 되었는데,
- 소음이 전혀없어 관계자에게 확인하니 전기로 운항하는 유람선이라고 하여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와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음

검토의견

- 또한, 유람선 운영도 지역주민들이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었음
- 앞서 언급하였듯 우리 군은 다른 인근 시군 대비 지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한 번 들어오면 다시 같은 경로를 거쳐 나가야 하는 문제로 관광객 유치에 불리한 여건임은 부정할 수 없음
- 고흥만을 전국적 명소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으로 고흥만과 보성군을 잇는 전기 유람선(하이브리드 포함)의 운항을 검토하였으면 함
- 정부에서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선박 개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고, ‘탄금호태양광 유람선’, ‘울산 태화호’ 등 우리나라에서도 전기 관련 추진선이 건조되어 운항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유람선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됨
- 고흥-보성 전기유람선 운항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제공은 물론, 인근 보성, 장흥, 강진의 관광객들이 고흥을 경유하여 순천, 여수지역 관광(그 반대인 경우 포함)까지 연계한 새로운 관광벨트를 구상할 수 있을 것임



검토의견

□ 양식어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 강화

- 연수기간 중 방문한 노르웨이는 물과 산의 나라로, 바다와 피요르드 및 호수가 언제 어느곳에나 있는데도 가시권내에서 양식면허 시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연안이나 호수 등도 쓰레기가 거의 없음
- 우리 군은 삼면인 바다를 둘러싸고 김·다시마·전복 등 각종 양식어업이 발달하여 육지부 인근 해수면이 각종 양식어업 시설물로 빼곡히 덮여있어 해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선박들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양식어업 시설에서 이탈된 부자재들이 해안가로 몰려들어 해안쓰레기 처리에 매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관광고흥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해상양식업 신규 또는 연장 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최소화 되는 방향의 면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 다양화 필요

- 스웨덴의 명물 ‘바사박물관’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함전시 박물관으로, 17세기 침몰한 전함을 바다밑에서 건져올려 실물크기와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음
- 특히, 기념품 가게에는 당시 사용하던 물품들을 기념품 형태로 제작하거나 다양한 굿즈(생활용품, 장식품, 키링, 엽서 등)를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박물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둘러보고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흥군 관광에서도 지역 이미지를 대표하거나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굿즈 개발과 제작을 검토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판매장 운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의정활동 정책검토 보고서(고건의원)

(서명)

활동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활동목적	◇ 선진 의정의 중심 덴마크의회 답사를 통한 의정 운영 노하우 탐색 및 의정활동 방향 설정
활동기간	2023. 6. 26.(월) ~ 7. 4.(화)

검토의견

□ 덴마크 의회

- 덴마크 의회는 4년마다 선거를 실시하고 179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175명은 본토에서 선출하고 4명은 그린란드와 페로제도라는 자치구에서 각 2명을 선출한다고 한다.
- 상임위는 당초 26개의 상임위에서 30개의 상임위로 변경되어 디지털 상임위가 신설되고 사회문제 및 노인·복지분야는 각각 분리 세분화되었고 179명의 의원이 1명당 5~6개의 상임위에서 중복 활동을 한다고 함.
- 의사결정과정은 장관을 미팅에 초청할 수 있으며 법률 시행전까지 각계 각층 전문가 및 시민들을 초청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한다. 의견 청취 과정에서 덴마크인들은 인내심과 관심도가 높아 최대한 많은 의견 청취를 하고자 의회에 전문가 및 시민 180여명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한 적도 있다고 한다.
- 최근 덴마크의회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기후, 복지, 디지털, 지방균형등 4가지 분야로 기후관련 대체에너지로 풍력발전사업을 주력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를 대응하고, 복지분야는 교육, 의료, 연금개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디지털 분야는 현 정부에서 종의 없애기 즉 문서의 디털화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균형의 경우 잘사는 지방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지방세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국세 지원금액을 달리해 격차해소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 덴마크 의회 의원들은 선출 후 대부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거주하며 자전거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보좌진은 5명을 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비서를 둘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한다.

□ 의정활동 방향

○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정책이나 제도 등은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영향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 덴마크 의회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덴마크 의회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서두르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다. 의회에 시민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정도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이나 법률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과정이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완할 수 있다.

덴마크 의회처럼 우리도 주요 정책 제안, 법률안 제·개정 시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단 한명의 군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 한 후 정책을 추진하거나 법률안을 재(개)정해야 하겠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대체에너지 사업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발 빠르게 대체에너지 개발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먼저 자전거 출퇴근, 종이팩 사용 등 생활 속에서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단지를 바다 한가운데 설치하는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있어 시민과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국가 전체에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인식이 퍼지고 국민들이 반감 없이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2030년까지 모든 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정책, 풍력발전단지 추가 건설, 자전거 문화 확산 등 중요 친환경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라 생각된다.

우리군도 태양광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관계자들의 방문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일조량과 3.8면이 바다인 우리군은 태양광, 풍력, 해양생물을 활용한 바이오 에너저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 개발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군민들의 삶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대체에너지 사업을 검토해 나가야 하겠다.